

여름 산사 추억

화폭에 담아온 가람의 숨결

동해 두타산 삼화사에서

장마가 지나고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시원한 계곡의 산사가 생각난다. 십수년전(1999년), 한 여름에 화구를 메고 산사를 찾아 떠났던 곳이 동해의 '두타산 삼화사'였다. 당시엔 집중적으로 가람의 숨결을 화폭에 담고 있었는데 그때 인연 닿은 곳이 삼화사였다.

사실 절을 그리기엔 여름이 제일 어렵고 힘이 든다. 우거진 숲에 가려 가람배치와 담우가 분명치 않고 전경을 위한 조망도 힘들기 때문이다. 길도 없는 산을 헤매며 사생하기란 여간 어려운 사정이 아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가능한 피하는 편인데 당시엔 특별히 폭포와 계곡 낀 절을 찾아 떠났었다.

소위 애국가 배경으로 해돋이 장관이 쫓대바위에 걸리는 추암과 더불어 국민관광지 제 1호 무릉계곡이 펼쳐진 곳에 삼화사가 등지를 틀었다. 가람을 품은 두타산의 '두타(頭陀)'는 범어 'dhuta'를 음역한 것으로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행위의 뜻을 지닌다

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산사의 비경 속에는 겨레의 아픔과 민족의식이 함께 녹아 있다. 거대한 무릉반석 위의 '금란정(金蘭亭)'은 한일합방 때 향교가 폐장된 울분을 삭혀 금란계를 조직, 해방 후 정자를 세우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시회(詩會)를 열고 있는 곳이다.

한편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무릉반석 위엔 선조들의 풍유와 낭만이 그윽하다. 바위에 서각(書刻)된 각종 글씨의 조형과 뜻이 새록새록 하다. 그중 선조 때 강릉부사를 지낸 명필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무릉선원(武陵仙源) 중대천석(中臺泉石) 두타동천(頭陀洞天)'이라 각인된 초서는 물 흐르듯 유연하고 경쾌하다. 그는 금강산 만폭동 반석에도 명필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삼척부사를 지낸 문장가 유한준(俞漢準, 1732~1811)의 글씨도 물길 속에 꿈틀거리며 여전히 생동한다.

〈삼화사고금사적〉(三和寺古今事蹟)에 의하면 '수령(守令)과 목백(牧伯)들이 이 반석 위에 이름을 새겨 놓지 않은 사람이



이호신 화가

“후삼국 통일 이룬 ‘삼화’ 정신 새기며 비경과 법열속에 붓을 드니 소동파의 오도송 들려오네”

없어서 마치 조정 중신들이 늘어난 것 같고, 또한 시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모두 문장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중 성암(省庵) 김효원(金孝元, 1532~1590)선생이 남긴 〈두타산 일기〉(頭陀山日記)등이 유명하다. 산수비경의 빼어나고 무릉계곡에서의 풍류가 가득하다.

이러구러 눈길은 반석 위를 떠나지 못하나 탁족(濯足)의 시원함이 마침내 물다라 넘어 삼화사 일주문 까지 이르게 한다. 가람을 둘러보고 객실을 얻어 여장을 풀 후 계곡을 오르니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다. 한 시간이 산길을 오르다 마주한 관음암에서 돌아보니 두타산성과 기암절벽이 장관이다.

또한 절과 무릉계곡이 동해로 빠지는 풍광이 아슬라하다. 앞산으로 발길을 옮기자 머리 위로 관음폭포가 쏟아지고 협곡을 가로지르니 쌍폭포가 우렁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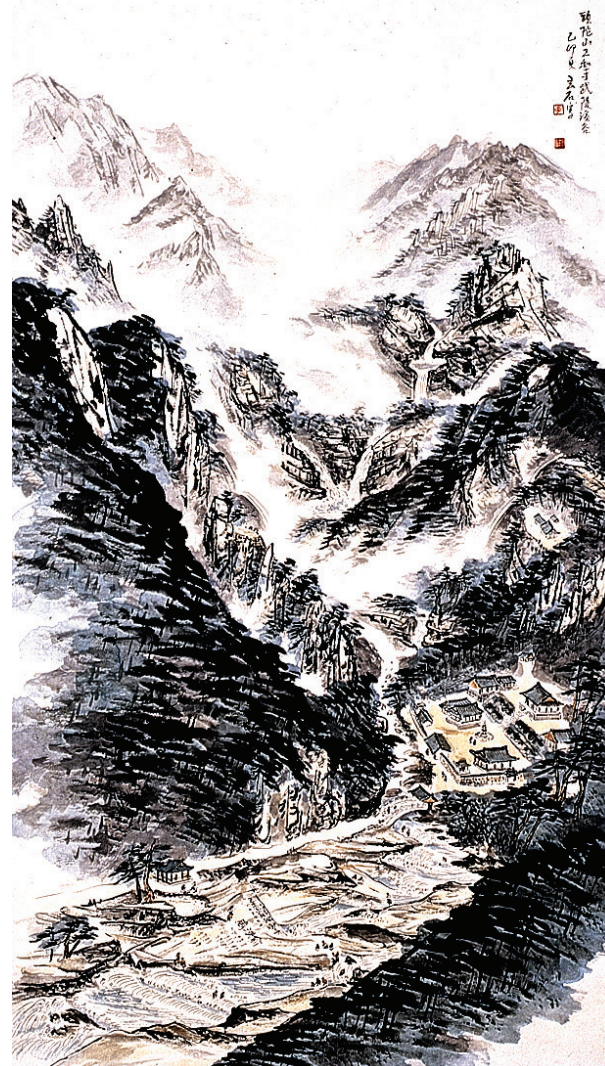
계곡을 울리는 한 줄기는 두타산에서, 또 한줄기는 청옥산에서 내려와 무릉계곡으로 흐르는 것이다. 더 산길을 재촉하자 삼단의 용추폭포가 산을 울리고 뒷전을

때리는데 가히 보느니 절경이요, 듣자니 절창이라...!

이 웅혼한 산세와 절경을 만끽하고 화첩을 든 길손은 어두워져서야 절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밤새 물소리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이른날은 두타산성에 올라 굽어보니 국토방위 소명(素明)으로 성을 쌓았던 선인들의 노고와 애절함이 잔하게 전해왔다. 이렇듯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오늘의 풍요와 즐거움이 있음을 깨달았다.

천년고찰 삼화사는 현재 예전의 위치가 옮겨졌지만 자장율사가 창건(642년)하고 범일국사가 재건한 '삼화(三和)'의 정신만은 여전히 새롭다. 즉 후삼국의 통일을 이룬 뜻이 오늘날 남북통일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길손은 탁족으로 만족하고 부지런히 화첩 위에 붓길을 가니 자연 물결이 화폭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비경과 법열(法悅)에 휩싸인 시간 속에 붓을 드는데 문득 소동파의 오도송(悟道頌)이 들려왔다.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 빛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일세



이호신 작. '두타산 삼화사 무릉계곡' 164x90cm (1999년작)

빛과 영상으로 '운주사' 전설 펼쳐내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전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전이 8월 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유망 청년작가 발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진 작가는 신작 대형영상작품 '운주사'를 비롯해 영상작품을 한 순간 कै치한 회화작품 등 총 50여 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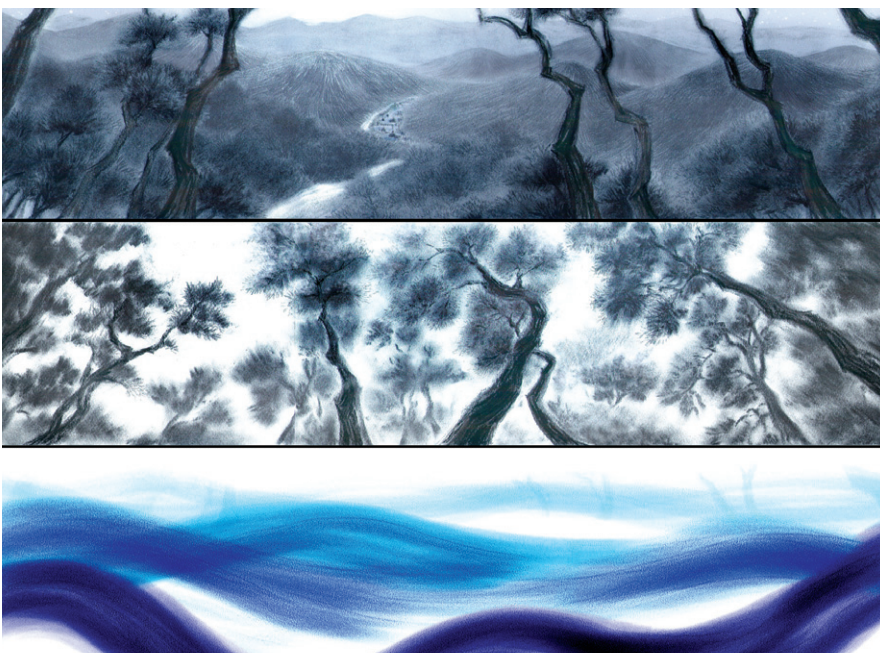
소재와 빛과 영상으로 구현한 작가의 색도전으로 평가 받는다.

진시영은 이번 전시에서 영상 कै치 회화작품 11점과 디아섹(Diasec) 4점, 그리고 회전하는 바다를 영상에 담은 'Tide', 인간미로를 표현하는 영상작품 'Human maze', 태양의 움직임을 LED로 표현한 'Wave', 우리의 전통인 나전칠기와 한국

흐름 Flow · 나전칠기 등 영상 회화작품 50여점 전시 8월 19일 광주시립미술관서

춤을 소재로 빛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나전칠기 영상작품 5점 등을 선보인다.

특히, '흐름 Flow'는 빛과 함께 공존하는 인간의 내재된 에너지를 LED와 디지털을 이용해 자체발광 효과로 드러내고 이를 다시 유화로 그려 눈길을 끈다. 이는 전통 회화 기법과 첨단 디지털 매체 효과를 조합시켜 독자적인 시각 이미지를



진시영 작 '운주사'.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씨가 8월 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 회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펼쳐낸 연작들이다.

한편, 진시영 작가는 조선대 서양화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다. 신세계미술제(2007), 하정웅청년작가(2009), 광주미술상(2011)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2012 윤이상 콘서트...9월 14일 예술의전당

작곡가 한스첸더 곡 연주 페터 히르쉬가 지휘 맡아



선전에 곡을 집필하는 윤이상 작곡가

'2012 윤이상 콘서트'가 9월14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윤이상과 그의 여러 작품을 초연한 한스 첸더의 곡이 연주된다. 한스첸더는 세계적인 작곡가로 오페라 〈요정의 사랑〉, 〈Teile Dich Nacht〉, 〈무궁동〉, 〈인상〉, 〈교향곡 5번〉(베를린필, 피셔-디스카우 협연) 등 윤이상의 걸작들을 다수 초연한 바 있다. 공연에서는 한스 첸더가 직접 추천한 유럽 최고의 현대음악 전문지휘자 페터 히르쉬가 내한하여 서울윤이상앙상블과 함께 정교한 음악을 만들어낸다. 또한 윤이상의 '밤이여 나뉘어라'와 실내교향곡 1번, 첸더의 '로슈 IV',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감상할 수 있다.

또 과거가니 국제콩쿨 1위에 빛나는 젊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현대음악 분야에 탁월한 해석을 들려주고 있는 소프라노 전유진이 함께 하는 근래 보기 드문 귀중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곡가 윤이상(1917~1995) 경남 통영 출생으로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베를린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85년에 튀빙겐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리고 1970년에 킬 문화상과 1987년에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 훈장을 받았다. 유럽의 평론가들에 의해 '20세기의 중요 작곡가 56인',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1995년에는 독일 자이브뤼겐 방송이 선정한 '20세기 100년 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관람료는 3만~10만 원이며 문의는 (031)445-0364. 정혜숙 기자

Advertisement for '민속죽염' (Minsookjukyeom) featuring various products and prices. Includes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적하수오' (Jeokhasu-o) featuring '목목분양' (Mokmokbunyang) products. Includes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백장록' (Baekjangnok) featuring a book by Baek Sang-sun. Includes text about the book's content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Jeongmaekseonwon Yeoreumsuryeonhui) featuring a seminar by Daewon Munjaehyun. Includes text about the seminar and contact information.